

2009년도 제2회 임시이사회

# 회 의 록

2009. 3. 31.

## 2009년도 제2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



---

1. 일 시 : 2009. 3. 31(화) 07:30~09:30

2.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하 소식당

3. 출석현황 : 재적 15명, 참석 15명

가. 출석이사 : 이사장, 진영옥 이사, 김영배 이사, 엄성호 이사, 김진현 이사,  
이윤자 이사, 이상진 이사, 노병찬 이사, 박용현 이사, 김규옥 이사  
공형식 이사, 이준근 이사, 강암구 이사, 안소영 이사, 장기태 이사

※ 대리 참석 : 진영옥 이사는 김종수, 김영배 이사는 이호성, 김규옥 이사는  
안도걸이 각각 대리 참석함

나. 출석감사 : 한종석 감사

다. 기타 참석자 : 기획조정실장(간사), 인력관리실장, 급여관리실장 등 35명

### 4. 보고사항 및 부의안건

가. 보고사항

- 2009년 이사장 경영계획서의 주요 현안과제 선정
-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운영규정일부개정안 관련 진행사항

나. 부의안건 심의·의결 결과

의안번호	안 건	심의·의결 결과
제 1 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일부변경안	원안의결
제 2 호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제 3 호	일산병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제 4 호	병원운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원안의결

## 5. 회의내용(회의록)

이사장 : 제2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간사는 성원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기획조정실장) : 성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적이사 열다섯 분중 열다섯 분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전영옥 이사님을 대신 하여 김종수님이, 김영배 이사님을 대신하여 이호성님이, 김규옥 이사님을 대신하여 안도걸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사장 : 간사의 보고와 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임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간 사(기획조정실장) : 국민의례는 장소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이사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사장 :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에 이사회에 참석 해 주신 여러 이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봄을 시샘하는 매서운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이제 완연한 새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생명이 용솟음치는 4월을 맞이하여 여러 이사님과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가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취임 후 6개월 동안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최선의 가치로 생각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바쁘게 일해 왔습니다. 또한 금요 조찬 세미나 및 주말 토론회 운영 등 우리공단을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건강하고 활력 있는 조직으로 면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공단의 변화하는 모습이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우수사례로 정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주춤하거나 멈추지 않고 공공기관 중 최고의 기관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정기 이사회 이후 추진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공단에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대폭적인 개혁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통 기관의 장이 바뀌게 되면 곧 바로 주요 핵심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여 새로운 기관장 중심의 라인을 형성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있지만 저는 취임 후 인사 보다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으로서 공단이 보험자로서 제 역할은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먼저 공단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3년의 임기동안 공단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구상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취임 후 5개월이 지난 2월, 우리 공단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조직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본부 1, 2급 간부 74명중 76%인 56명을 교체하여 현장 경험과 능력이 있는 젊은 간부를 본부에 발탁·배치 하였고, 수도권과 지방 조직의 고질적인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원거리 미근무자에 대한 과감한 전보 조치와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한 하위직 직원을 상위직에 과격적으로 임용하여, 연공서열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는 등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불어넣는 전향적인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침체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자발적인 임금반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임직원들은 공공 기관중에서 급여가 가장 적고, 승진 적체도 가장 심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3일 2급 이상 임직원은 이번 3월 급여에서 기본급의 22%를 자진 반납하기로 전원 동의하여 약 5억 여원의 일자리 나누기 및 인력구조개선기금을 이미 조성하였으며, 목표액인 60억원의 달성을 위해 전 직원의 자발적 동참을 호소하는 결의대회를 3. 23일 공단 강당에서 개최하여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공단을 저비용 고효율의 공단으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주 화요일에 끝난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다소 아쉽지만 준우승을 차지 하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WBC대표팀 28명의 연봉 총액은 77억으로 일본의 17분의 1에 불과하고, 미국의 간판타자 데릭지터의 연봉 303억원과 비교해도 4분의 1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베네수엘라 등 메이저리거들이 주축이 된 각 나라의 대표 선수들이 한국산 저비용 고효율 야구의 위대함에 무릎을 꿇었다고 각 해외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도 저비용 고효율 기조 아래,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통한 보장성확대와, 의료쇼핑, 과다 중복 의료이용자의 부적절한 의료이용행태 개선, 만성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 지원, 노인 진료비와 약제비에 대한 절감 대책 등을 마련하여 실천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들께서도 우리 공단이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 다음은 지난해 2월 27일에 개최했던 제1회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낭독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 절약을 위하여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유인물로 대체할 것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사들 : 예.

이사장 :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 : 다음은 보고 사항으로 제1호 2009년도 이사장 경영계획서의 주요 현안과제 선정, 제2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관련 진행사항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간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 사(기획조정실장) : (유인물에 의거 설명)

이사장 : 보고 사항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의무과제중에서요. 질문을 줌. 인력 감축하고 인력 구조 개선하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 사(기획조정실장) :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정원의 감축을 뜻하고 인력구조의 개선은 우리 공단이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퇴직하는 인원에 대해 퇴직을 활성화하고 퇴직인원수 만큼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우리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종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답답해지는데요. 그게 인력감축은 정원의 감축을 얘기하고 인력구조 개선은 명퇴 등 해 가지고 신규채용 인턴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요.

간 사(기획조정실장) : 인턴사원하고는 연결이 되어있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인턴사원은 인턴사원일 뿐이고 정규직원은 신규채용을 하는 절차에 의해서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중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인력구조 개선이나 인력감축이나 이게 일방적으로 보고사항으로 이사장님이 이런 경영계획을 가지고 복지부와 협의 하시는 것은 이것이 직원들의 상당한 근무 조건이나 향후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노동조합하고 어느 정도 협의 내지 합의를 거치신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제 발전회사 이사회에서도요. 이것을 보고사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안전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이사회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노조와 이 부분의 인력감축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 내지 합의한다 라는. 그런데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보고사항으로 당일 제출한다고 했는데 사실 놀랐거든요. 왜 건강보험공단만 인력구조조정계획이 없을까? 오늘까지 공공부문이 쪽 오는데 의무 과제가 우리는 보고사항으로 그냥 올라와 있어요.

공형식 이사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글자 그대로 경영계획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력감축 250명은 정원을 조정하는 범위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인력구조개선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평균 연령이 44세에 달하는 조직으로서 도저히 앞으로의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명퇴 등을 통한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인턴사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인력 구조 개선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사장님께서 경영계획의 일환으로 복지부에 제출한 안이기 때문에 보고사항으로 책정을 했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시점에서는 다시 어떤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중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직제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몇 명 감축 이렇게 쪽 나오지 않습니까? 정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직제규정이 개정되어야 되는

문제라는 말이지요.

공형식 이사 :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의 심의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여 규정을 확정할 일이고 지금 이 단계는 이사장님께서 공단 운영에 대한 경영계획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다음 복지부, 기재부와 협의해야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종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그 다음에 전임자 감축문제도요, 일방적으로 이것도 계획일 뿐이니까 그지요?

공형식 이사 : 전임자 감축문제는 노사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잖아요.

김종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협의가 아니고 합의지요.

공형식 이사 : 단체협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갈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방이 예를 들어서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어느 한쪽이 계획을 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낼 수가 있잖아요.

김종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노동조합에 대한 보고하면서 지금 먼저 도발하시는 거예요.

공형식 이사 : 제가 볼 때에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구요.

김종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협상도 시작을 안 했는데 이렇게 18명을 감축하겠다고 계획을 내고 노동조합이 이것을 알면 어떻게 나올거라 생각을 하세요?

공형식 이사 :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협상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요. 서로 안을 가질 수 있고 계획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종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이사회에 보고사항으로 하셨다는 게 정말 답답하네요.

공형식 이사 : 저는 그게 이사회에 보고하는 부분이 더 떳떳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괜찮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준근 이사 : 총무이사입니다. 전임자 감축문제는 공식적으로 노사협약에서 의논을 안했습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전임자 등이 너무 많다고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아 협의를 통해 전임자가 많음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6월에 단체협약 협상이 시작 됩니다. 시작되면 그때 몇 명을 감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김종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선진화 방안을 내놨다는게 노동조합하고 대립각을 세워보자는 저의를 드러내신 건데,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데 6월에 가서 협상 과정에서 과연 노동조합 전임자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것은 노사쌍방에서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틀릴거라구요. 그 속에서 협상과정에서 이것 계획이 이러니까 이렇게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 사(기획조정실장) : 이것은 공공기관의 의무과제라는 것을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노사와 협의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그때 서로 협상에 의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장 : 이해하셨을 거로 믿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성(김영배 이사 대리인) :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과제에 보면 취약 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과 중증질환자 진료비 경감확대 그 방안이 있는데 지금 어차피 건강보험재정도 여유가 크게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혹시 재정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 그런데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용현 이사 : 그런 부분은 이미 건강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 앞으로 추진할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재정과 관련된 문제는 따로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이익단체 대표들이 참여하시는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 :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만, 당초 12.7%를 예상했으나, 2월말까지 전년도 동기 대비 11.0% 증가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재정을 매달 분기별로 운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6월 이후에 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협의과제3'에서... 그게 현지 실사권을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간 사(기획조정실장) : 현지 실사권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넓은 것 같고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허위부당 청구에 대해서 기획조사를 하거나 또는 요양급여기준이나 이런 것을 위배한 사항이 인지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당청구를 확인한 후에 환수조치를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김중수(진영욱 이사 대리인) : 지금은 현지조사권 없으니까요. 의심이 되는 것은 그러면 복지부에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공단에서 직접 이것을 현지 조사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지.

안소영 이사 : 현재로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하고 있는 수진자 조회를 공단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그대로 활성화 시키고요. 그리고 복지부장관의 명을 받아서 하는 현지조사 또한 저희가 수진자 조회를 통해서 발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좀 더 강화할 수 있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공단이 보험자로서 갖는 다던지 이런 변화를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장 : 이어서 부의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순서로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안1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일부변경안, 의안2호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3호 일산병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4호 병원운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인데 이사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안1호 내지 의안4호를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사들 : 예.

이사장 :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의안1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일부 변경안 내지 의안4호 병원운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사장 : 그럼, 의안1호 내지 의안4호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의를 의안1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일부변경안과 의안4호 병원운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한 후 의안2호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과 같은 내용의 의안3호 일산병원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안1호 및 4호 안건에 대해서 간사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 사(기획조정실장) : (유인물에 의거 의안1, 4호 안건 제안설명)

이사장 : 의안1호 및 4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들 : 의견없음.

이사장 :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의안2호 및 3호 안건에 대해 간사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 사(기획조정실장) : (유인물에 의거 의안2, 3호 안건 제안설명)

이사장 : 의안2호 및 3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질문을 드릴게요. 법률적 검토를 하신 겁니까? 보수규정에 관한 것을 근로 조건의 저하 등 노동조합하고 합의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게 안 하면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신 것인지.

이준근 이사 : 예, 총무이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그 내용은 기존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규 직원, 신규로 이 건에 한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서 두 차례의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김종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의견을 들으셨는데 노동조합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준근 이사 : 노동조합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김종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법적인 부분은 서로의 주장이 틀린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의견만 들어서 법적인 절차를 다 거쳤다고 하는데 임금 테이블에 대한 저하, 개정 이것은 법적으로 만약에 노동조합 등이 소송을 통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겠네요.

간 사(기획조정실장) : 법률자문 내용을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규 직원부터 적용하는 보수규정 개정의 경우에는 공단의 기존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조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고 노조의 의견을 들어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은 신규 직원에 대한 취업규칙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족하다 이런 것이 고문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김종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주제하고 동 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지금 정부에서 권고 사항이잖아요. 사실 권고사항에 대해서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이행의 강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어차피 건강보험공단은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의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뭐 경제를 살리겠다는게 주요 정책기조고요. 사실 대졸 청년실업들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공기업에 들어 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취업하기가 이쪽에 정규직으로... 인턴직은 별도로 하겠지만. 시험을 봐서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초임 임금을 삭감해버리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자꾸만 임금을 삭감하면 인턴 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인데. 뭘 가지고 소비를 해요? 경제 살리겠다면서 수출 위주로 가는 경제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수를 살려야지 수출 위주로만 가서는 안 된다. 내수를 살려야 되겠다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바닥에 있는 노동자들 임금을 이렇게 해서 이게 경제가 살겠냐 이거지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소비도 하는 거고 그래야 내수가 사는 건데.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제기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이게 법률적 검토를 했다고 하더라도. 또한, 기왕에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지나간 것 들이고 당장 나 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보수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실을 상식적으로 놓고 봐야 되요. 보수규정개정, 임금 테이블을 갖다가 저하시킨다 이런 것인데 노동조합의 의견만 듣고서 한다는 게 그게 사실 뭐 법률적 검토를 하셨다니까 앞으로 법률적 다툼이 더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도 거의 뭐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지침이나 강제 이행상으로 하는 경우 말만 권고라고 해놓고 사실은 권고가 아니고 똑같이 강제적으로 이행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몇퍼센트 임금 삭감만

공기업마다 틀릴 뿐이지. 다른 이사님들도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 좋겠구요. 기재부에서 나오신 이사님 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 살리고 일자리 정말 나눌 수 있는 것인지. 기재부 이사님 안 나오셨나요?

공형식 이사 : 나오셨는데요. 먼저 우리 위원님 말씀이 왜 권고사항인데 이것을 꼭 할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 공단의 입장을 제가 기획이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저희 같은 경우, 사실 공공기관입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으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을 하고 월급도 받습니다. 지금 작금의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기존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생각이 많을 줄로 압니다만 현재 저희가 어느 때 보다 신규 직원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자꾸 확대 되면서 소요 인력이 필요하고 저희 건강보험도 1,460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 쪽으로 인원을 전환 배치함으로써 건강보험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고 해서 올해 신규 인력을 많이 충원해야하는 다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작금의 경제 상황을 짐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더 나눈다는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추진을 했고 권고사항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공단도 여기에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법률적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진 이사 : 금년에 신규인력 직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형식 이사 : 저희가 물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야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금 160명 정도가 자연 퇴직으로 인해서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쯤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희망퇴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인력만큼 신규 인력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라면 한 300여명 이상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신규 직원 충원을 한 명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신진 대사를 위해서라도 올해는 신규 인력 충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가운데에서 대졸 초임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권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 : 김종수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사장으로서 박용현 이사님께서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실정을 말씀드리면 저희 조직이 방만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국회 속기록을 보면 보건복지위의 의원으로 있으면서 저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15,000명 있다가 줄어서 8천명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작년 1,460명의 인원을 빼냈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사님들도 아셨으면 싶은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면 노인장기요양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호직을 많이 뽑아놓으니까 간호사들이 임신을 해 휴가를 내고, 또 일이 많으니까 도저히 못하겠다고 5~6명이 사직을 하고, 지금 제도 시행 1년이 되어서 대상자들 21만명 갱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업무에 손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4월에서 6월까지 해야 되는데, 대기하던 노인들까지 계속 신청을 합니다. 등급신청을 하면 그것을 인정조사라 하여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 일도 못하고, 시설에서는 부정·부당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요. 예를 들어 좀 심한 경우에는 재가시설에 요양보호사들이 가면 자격이 없는 운전사가 거드는 것은 다반사고, 샤워기로 두세번 물만 뿌리고 나서 목욕했다고 보고하고. 그러면 일일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인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이 태부족이어서 한 천명은 뽑고 싶은데 사실 실정이 이렇기 때문에 복지부의 승인 요청을 해야 하는데 말씀을 드리기도 송구스러워서 말씀도 잘 못하고, 인력은 거의 동결이고 보험료도 동결이고 그래서 굉장히 병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30명 요양직 등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허용해 주셔서 가지고 지금 전산직 포함 58명을 채용하려고 있습니다. 전산직도 오래된 직원들입니다. 정보관리실에서는 40살 이상이 정보언어를 한개 할 때 20대는 5개 이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채용을 안 해 주면 일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겨우 20명 정도 채용해서 전산직만이라도 인력구조를 조금이나마 바꾸려 합니다. 지금 김종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옳습니다. 전 공공기관 363개 중에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옆에 있는 국민연금보다도 초봉이 낮고 심평원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이런 구조인데 봉급을 깎는다는 것은 저로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사실 어떤 점에서 답답한게 지금도 임금이 많이 깎여있습시다만 외환은행 같은 데는 8천만원 9천만원 등, 은행 공기업은 그런데, 이게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동열에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임금삭감의 권고안이 2천만원에서 플러스 되는 것은 반으로 깎는 이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사님들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맞춰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렵고 청년 실업이 100만이 넘는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잡세어령을 하고 남은 돈으로 다른데 투자를 하고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솔직히 이사장으로서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쪽이 파업을 하고 계속 이러다보니까 결국 우리가 자초한게 많습니다. 저는 이사장으로 와서 우리가 우리의 상급 감독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라던지 또 저희들 여러가지 경영의 효율화를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에 저희들이 맞추어서 그분들을 설득 시키고, 이제 우리가 새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이 뽑는 인원이라던지 우리 봉급에 대한 기본 인상안을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생각하는데, 오늘 사회보험노조가 밖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종수님 말씀은 다 일리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사장으로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저도 봉급을 733만원 받고 있습니다. 절대로 방만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개선해 나가고 이것을 이사님들께서 큰 틀에서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김종수님이나 여러분이 걱정 하시는 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그래서 기재부에서 오셨으니까 과연 대졸 초임삭감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소송을 걸어봐야 알겠지만 정확한 판단은 차후의 문제일 것 같아요. 자문하고 사법적인 판단은 별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를 대표해서 오셨으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대졸 초임 삭감을 해서 그래서 얼마나 자리를 나눌 수 있고 또 이것을 어디에다 얼마나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경제를 얼마나 또 살릴 수 있는 건지.

공형식 이사 :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김규옥 이사님이 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안도걸님께서 대신 참석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도걸님은 복지예산을 담당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아마 말씀 준비도 못하셔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안도걸(김규옥 이사 대리) :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제가 대리참석 했구요. 말씀하신 바는 제가 잘 알겠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 보다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말 CEO로써 국가의 정책방향, 이 조직을 이끄셔야 되는 양자의 입장에서 고충어린 말씀을 하셨고 그 이상 제가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나누기라는 국가적 과제, 국가적 위기를 같이 넘겨가자하는 취지에서 아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만 다들 크게 국민들의 이런 방안의 대의를 생각해 주시고 어렵지만 맞춰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자리도 아마 그런 진통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되고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장 : 김중수님이 걱정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그런 권익이라던지 복지, 우려하시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 해서 노조와도 협의하고 또 합의할 것은 합의하고 이렇게 나갈테니까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제가 그 말씀하신 취지를 누구보다도 제가 절절히 압니다. 잘 해 나갈테니까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는 것이 정말 앞으로 더 우리가 우리 직원들의 후생과 복지를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중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의견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결론적으로 기재부 이사님을 대리해서 오신분의 답변은 상당히 추상적인 답변으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사님이 더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표결 처리를 하시는 게, 아니면.

장기태 이사 : 잘 아시다시피 공기업에 대해서 선진화내지는 구조조정이 아주 광범위하게 그리고 광의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안건과 관련해서는 국민

연금이라던지 심사평가원에서도 나름대로 통과가 되고 하는 안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정책에 순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우리 공단이 처한 것은 지난해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행이 됐고 현안으로서 4대 보험 통합징수 문제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몰라도 또 장애인요양보험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공단에 시범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역할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규 직원에 대한 보수인하 조정 문제는 구조조정 문제라던지 또 이런데 대한 공단에 대한 기대역할이 높아지는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기가 향후에 마련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만 반대의견이 있으면 의장님 표결에 부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이 얘기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경제위기하고 열심히 공부한 여기에 계신 이사님들 2세들일 것입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결정하는것은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청년실업 예비 노동자들이지요. 자기 2세들한테 우리가 잘못된 것을 전가하는 거지요. 일종의 이것은 뭐 고통분담 차원이 아니라 대학생들 이것에 대해서 대졸초임 삭감에 대해서 사회 불만이 많아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렇게 내 아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불특정의 2세들이 지금 결정에 의해서 경제 위기에 고통을 당하는 전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이것을 찬성하실 수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입니다.

이사장 : 그러면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님께서 표결을 원하셨고 해서 그렇다면 의안 2호, 3호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 제안한대로 반대하시는 분 먼저 손들어 주시겠습니다.

김종수(진영옥 이사 대리인) : 찬성부터 물으십시오. 그게 순서 아닙니까?

이사장 : 찬성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명 거수)

이사장 : 반대하시는 분. (1명 거수)

이사장 : 14대 1로 의안 2호, 3호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사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상정된 의안1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일부 변경안, 의안2호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안3호 일산병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의안4호 병원운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사장 : 이어서 최근 우리공단에서 현안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는 약가 계약의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서 약가개선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가개선부장 : PPT에 의거 설명

이사장 :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적극 도와주신 이사님 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사님들의 말씀, 공단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임시이사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3타)